



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관리 안내



삼성서울병원 / 감염관리실

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(MRSA) 감염관리

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란?

황색포도알균은 인체나 환경에 정상적으로 있는 세균입니다. 다만 특정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.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메치실린 등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으로 오래 전부터 이 세균의 보균자가 증가 해왔습니다.

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감염된 경우, 왜 접촉격리를 해야 하나요?

보균자라고 해서 모두 균에 의한 감염으로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이 내성균은 사람 간의 접촉, 혹은 사람과 환경의 접촉 등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보균자는 전파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.

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(MRSA) 감염관리

환자와 보호자는
이렇게 해주세요.

- 1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줄이고 가능하면 공공장소에 가지 않습니다.
- 2 간병하는 보호자는 환자나 혹은 환자 주변환경을 만진 후에는 침상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시행하거나 세면대에 비치된 소독제나 비누를 이용하여, 흐르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.
- 3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 (혈압계, 체온계, 수건 등)을 다른 환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4 기저귀 교환 등과 같이 환자의 분비물을 다룰 때는 비닐앞치마 및 장갑을 착용하고, 장갑을 벗은 후에 반드시 세면대에 비치된 소독제나 비누를 이용하여, 흐르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.
- 5 호흡기 분비물 흡인이나 검사시 분비물이 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.

감염의 **70%**가 손을 통해 전염됩니다.

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(MRSA) 감염관리

접촉격리 시 필요한 물품은?

혈압계, 체온계, 청진기, 고무줄, 알코올 솜, 손소독제 등이며, 간호사실에서 제공하며, 해제 시 수거합니다.

격리해제 기준은?

검사결과 확인 후 시행한 검사에서 3회 연속 음성인 경우에 해제하게 됩니다.

퇴원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퇴원 후에는 일상 생활에서는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

